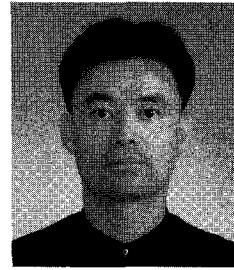


가금티푸스 근절될 수 있다.



손 영 호
(주)한국미생물연구소 학술부
반석동물병원 원장

가금티푸스!
과연 그 악명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1992년 국내에서 가금티푸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가금티푸스의 피해와 그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의 현실이 되어버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단지 분명한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도 가금티푸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는 커녕 그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뾰족한 근절책을 그 누구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가금티푸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금티푸스를 근절한 여러 농장의 사례들을 통하여 예방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또 알

고 있었지만 발병된 계군을 치료 또는 억제하려는 소극적 방법을 선택해 왔었고, 일차적으로 제시된 적극적 방법인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필자는 수년동안 (주)한국미생물연구소에 근무하며 전국에 걸친 피해실태와 상황을 직접 접하였으며, 동물병원을 개원한 후 최근 수개월동안 여러 농장의 가금티푸스 사례를 접하며 실험실 진단, 처방과 실제의 효과에 대해 얻은 소견과 예방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항생제 선택의 한계성

특효약 겐타마이신(?)

오랜 시간동안 여러 농장에서 겐타마이신은 백신이상으로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 티푸스에 감염된 닭들에게 주사되어져 왔다. 1회 주사로

약 한달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가금티푸스 발병 억제 효과가 있었으니 특효약으로 여겨졌음도 어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도 젠타마이신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현재 젠타마이신을 주사할 경우 일부의 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4~5일, 심한 경우에는 주사 당일 혹은 익일부터 폐사가 이어지기 일쑤이다.

가금 티푸스의 젠타마이신에 대한 약제 내성 증가의 결과로 농장측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각종 항생제에 내성 있는 가금티푸스균만을 생성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필자가 발병의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S. gallinarum*으로 확진, 분리된 균으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을 해왔지만 과거의 젠타마이신의 경우와 같은 발병억제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를 보기는 매우 드물었다.

혹, 있다하더라도 회를 거듭할수록 그 한계는 너무도 명백한 큰 장벽으로 다가올 뿐 뚜렷한 억제효과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질병이 발생한 후에 항생제를 통하여 그 증상을 억제하거나 치료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보조치료제 병행 투여 및 백신투여를 통한 질병예방 방법으로서의 전환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2. 치료방법 선택의 개념 전환

농장에서 어떤 항생제를 주사한 후 폐사가 수일내 속출하는 경우 재차 그 항생제를 주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또한, 발병 농장마다의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인근농장 또는 바로 옆농장에서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다고 우리농장도 잘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어떤 경우는 같은 농장에서도 각각 다른 항생제 감수성을 갖는 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필자는 종종 체험하고 있다.

최선의 방법은 발병 농장의 가금티푸스균을 분리한 후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감수성 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일이며, 단순히 항생제만을 의존하지 말고 감수성 있는 약제가 잘 침투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양계전문 수의사들과 논의하여 치료 방법, 약제 선택을 결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의 잦은 투약 및 다량의 항생제 처치는 주사용역비 증가 및 과량의 항생제 사용에 의해 심한 설사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소한 약제 감수성 검사만이라도 실시하여 약제를 선택하여 투여함은 물론, 항생제의 단순처방에 의한 치료보다는 보조치료제를 혼합 처방하는 것이 티푸스 발병억제 효과에 대한 연장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알맞은 보조치료제를 선정하여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실례로 필자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로 선택된 항생제와 보조치료제를 혼합 처방한 결과 항생



제 단순처방시 5~7일 전후의 폐사억제 수준을 약 20일에서 최고 28일까지 폐사를 억제시킨 경험이 있다.

3. 적극적인 가금티푸스 근절책

가금티푸스가 최초로 어떤 이유에서 발병이 되었고,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병을 관리해 가야하며 또 근절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부정적 결론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한다.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제조 초기(필자가 회사에 재직할 당시), 가금티푸스를 백신을 통하여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백신 접종후의 후유증, 역가 측정과 방어율 측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Oil 백신의 후유증은 그 정도가 심하였으며, 감염여부가 불확실한 계군에 대한 접종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이유로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백신을 통해 가금티푸스를 근절하게된 여러 농장을 자주 접하게 되고, 각종 지면을 통하여 백신접종으로

로 인해 가금티푸스를 근절하게된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나, 둘 버리게 되었다. 필자가 알고있는 가금티푸스를 근절한 여러 농장들도 가금티푸스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있다. 결국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농장들만이 티푸스 근절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으로 남게될 것이다. 중추과정에서의 가금티푸스 Gel백신 접종 및 Oil백신의 접종은 앞으로 한국의 양계산업을 존속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임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둘째, 발병계군은 과감하게 도태되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발병계군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앞으로는 도태하고 싶지 않아도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이겠지만 감염원 차단 의미뿐만 아니라 채란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발병계군 도태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해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할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 중추구입시 계군의 감염여부 확인

감염초기에 질병 감염여부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중추구입시 혈청검사와 계군의 감염군 분리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계군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감염된 중추의 판매 금지

감염여부를 식별치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도리가 없겠으나 살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농장간의 감염된 중추의 판매는 그것이 아무리 헐값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 감염 매개체의 박멸

농장간의 대표적 매개체이며 질병확산의 주범인 쥐를 박멸하고, 농장내 닭이와 파리 등을 구제(驅除)하는 일은 질병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소독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는 생각은 금해야

심하게 소독하는 일은 상대에게 미안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소독을 행한다는 것은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소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해서는 가금티푸스를 근절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4. 결론

어느 시점에서 이 땅에서 가금티푸스가 근절되는 시기는 꼭 온다. 그것이 가금티푸스의 특효약 개발에서이든, 가금티푸스에 아주 강한 품종의 개발에서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티푸스 근절의 그 시기는 꼭 오리라 필자는 믿는다. 그렇지만 특별한 박멸대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역시 백신접종을 포함한 철저한 방역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아는 한 농장은 백신접종은 기본으로 실시하며, 출입차량과 사람, 심지어 외부에서 반입되는 약품 포장까지도 철저히 소독을 통하지 않고는 농장에 출입시키지 않는 농장이 있다. 누가 이 농장의 방법을 지나치다고 하겠는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가금티푸스 박멸 또는 근절의 경험이 있는 농장들의 작고 큰 예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금티푸스가 이 땅에서 근절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이만 맺을까 한다. 양계